

칠레, 지방선거 이후의 정국

이태혁 HK 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주요 내용

- 2017년 대선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인 2016년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야당 연합인 칠레 바모스의 신승과 무소속의 약진으로 집권 여당의 입지가 더욱 축소됨.
- 집권 여당인 누에바 마요리아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인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 스캔들 및 지지부진한 정책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됨.
- 예상 밖 지방선거 결과로 2017년 11월 예정된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 연합체인 칠레 바모스의 우위를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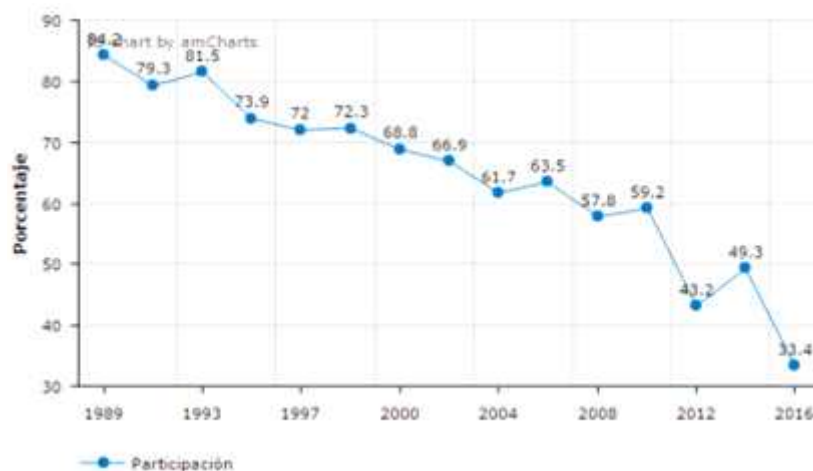
1 이슈 현황

2017년 대선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barometer)인 2016년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야당 연합인 칠레 바모스(Chile Vamos, CV)의 신승과 무소속의 약진으로 집권 여당의 입지가 더욱 축소됨.

- 2016년 10월 23일 실시된 지방 선거는 칠레의 민주주의로의 회귀(1990) 이후 가장 저조한 투표율(33.4%)을 보임([그림 1] 참고).
 - 이번 선거에서 보수주의 정당들의 연합 야당인 칠레 바모스가 38%, 중도좌파 집권 여당인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NM)가 37%로 각각 득표함([그림 2]).
 -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17.35%의 득표율을 보인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 했다는 점임.

그림 1. 연도별 선거 참여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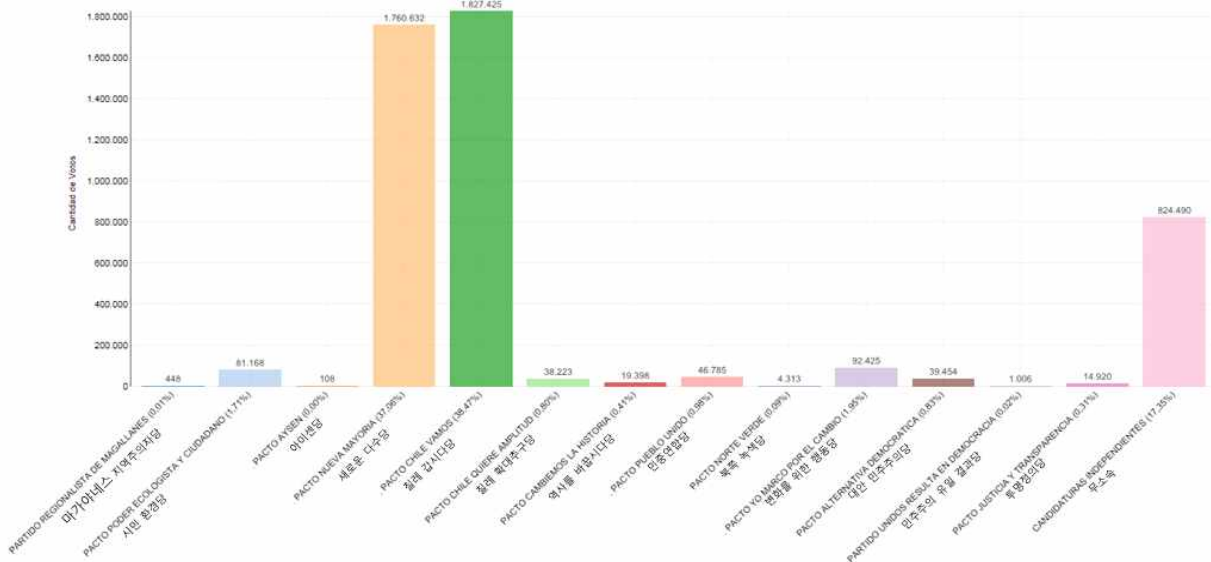
자료 : 칠레 언론사 24horas.cl

-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EL)에 따르면, 칠레 전체 15개 행정주(Regiones)¹⁾ 가운데 칠레 북부 지역에서 무소속들이 여당이나 야당 연합 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함(제15주인 아리카 및 빠리나코타 Region Arica y Parinacota, 제2주인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제3주인 아타카마 Atacama 등).

1) 칠레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북부 (Norte Grande), 소북부 (Norte Chico), 중부 (Zona Central), 남부 (Zona Sur) 및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역으로 구분함. 그리고, 칠레는 행정구역 상 15개의 행정 주 (Regiones)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주에는 주도 (Capital)가 있음. 15개의 행정주는 54개 지역 (Provincia), 345개 구역 (Comuna)로 세분됨. 특히, 칠레의 행정주는 본래 제1주~제12주 및 수도권 주 (RM, Region Metropolitana)로 총 13개 주였으나, 2007년 제1주 (Region Tarapaca)와 제10주 (Region Los Lagos)를 각각 이분하여 제 14주 (Region Los Rios), 제 15주 (Region Arica y Parinacota)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15개 행정주로 이루어짐 (참고:주한 칠레대사관)

그림 2. 2016 지방선거 정당별 투표 참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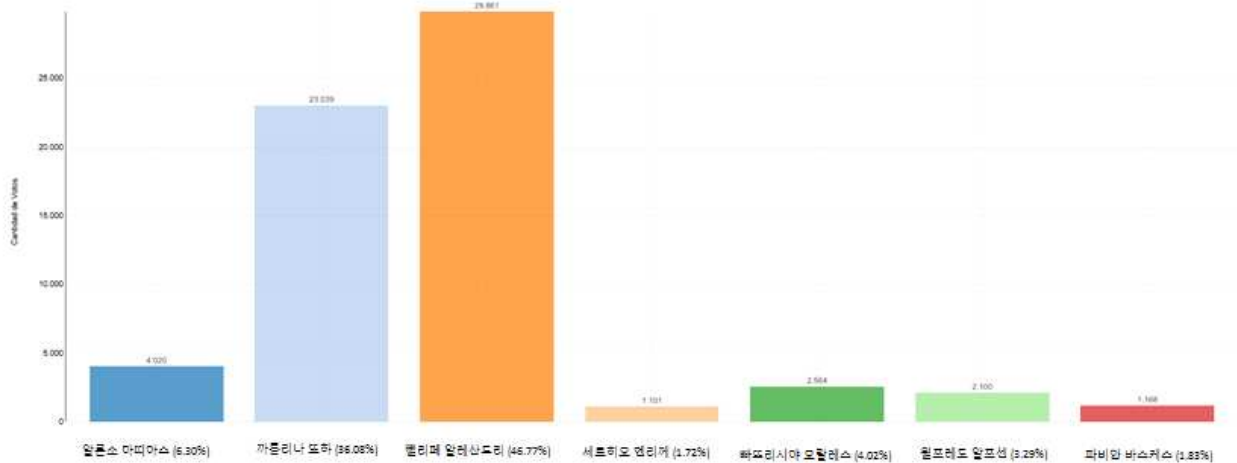


자료 :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EL)

- 한편, 모두 345개시의 시장(mayor) 선출을 위해 13개 연합정당 소속 및 무소속, 총 1,211명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짐.
 - 연합 야당인 칠레 바모스가 2012년 대비 5개 시 지역을 추가 확보하며 145석을 확보함.
 - 집권 여당은 2012년 대비 산티아고市 등에 패배하며 25개시가 축소된 140석을 차지하는 데 그침.
 - 선거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칠레 바모스 연합 야당이 327개시에 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출마시켜 산티아고市를 포함하여 집권 여당의 텃밭에서 근소한 차로 승리하는 이변이 속출함.
-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현 산티아고 시장인 카롤리나 토하(Carolina Toha)가 재선에서 실패하는 파란이 일어남.
 - 그녀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부 시절, 부통령 및 내무부,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호세 토하(Jose Toha)의 장녀이자, 민주당(PPD) 당수임.
 - 칠레 바모스가 내세운 후보였던 펠리페 알레산드리(Felipe Alessandri) 현 산티아고 시의원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전체 득표수의 46.8%인 23,039표 획득하며, 36.1%에 그친 카롤리나 토하 현 시장을 누르고 4년 만에 다시금 산티아고시를 우파의 도시로 변모시킴.
 - 한편,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하 후보와 알레산드리 후보를 제외한 시민환경연합당의 알론소 마피아스 후보 등은 모두 5% 전후의 미비한 득표율을 보임.

그림 2. 2016년 산티아고 시장 선거 후보자별 득표 정도

(단위: %)



자료 :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EL)

2 현 정부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


☞ 집권 연합여당인 누에바 마요리아의 지방선거 패배 및 90년 문민정부 회귀 이래 최저 선거참여율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음.

- 첫째, 현 정부 및 여당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칠레 국민의 총체적 불만, 특히 개혁 미비에 따른 정치적 불신임이 투표로 환산됨.
 - 바첼렛 정부는 세금개혁 및 노동법 개정, 공교육의 정상화, 선거법 그리고 헌법 개정 등에 관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지난 대선 기간에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했지만 개혁은 답보 상태임.
 - 아울러, 바첼렛 정부 2기 출범 직후부터 불어진 가족형 비리 사건으로 바첼렛 대통령의 청렴과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김.
- 둘째, 선거 시스템, 즉 2012년부터 시행된 선거제도의 변화에 기인함. 상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은 이전 선거 대비 투표 참여율이 15% 급감함.
 - 2012년 이전의 선거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울러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투표가 의무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200달러(약 24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등록은 자동으로 진행됨.
 - 투표의무제가 폐지되어 유권자의 수는 산술적으로 증가했지만, 정권심판의 '도구(Tool)'로 작용

하는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90년 민주주의 회귀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임.

- 셋째, 칠레의 지속적인 저성장과 후보자들의 공약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함.
 - 칠레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칠레 GDP 10% 정도를 담당하는 동(copper)의 국제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칠레 경제발전의 저해 및 정부 재정 수입의 위축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동력을 상실함.
 - El Mercurio 등 칠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공약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함.

3 칠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대선 전망

 **예상 밖 지방선거 결과로 2017년 11월 예정된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 연합체인 칠레 바모스의 우위를 전망함.**

- 이코노미스트는 금번에 치른 지방선거 이전에는 현 집권당의 승리로 차기 대선에도 그 여세를 몰아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지만, 본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되었다며 우파 정부의 재등장을 예상함.
-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시장직을 배출한 제1야당인 칠레 바모스의 대선 후보로는 제36대 대통령직(2010~2014)을 수행한 바 있는 세바스티안 삐네라(Sebastián Piñera)가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 반면에, 현 집권여당 소속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전 대통령 (제34대, 2000~2006)은 이번 지방선거의 집권여당 참패와 바첼렛 정부의 무능력에 기인한 비판적 시각이 큰 부담을 안게 됨.
- 한편, 앵커 출신인 알레한드로 기예르(Alejandro Gullier) 상원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잠정적인 제1야당의 후보인 삐네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현 제1야당인 칠레 바모스의 2017년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심스럽게 승리를 내다보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대선이 1년여 남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도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때마다 확인된 만큼 기예르 상원의원이 현 집권여당의 대권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다면 대선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힘.

-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예르는 ‘외부인(outsider)’이라는 점에서 ‘새 인물’이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불고 있는 우파 정부(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재등장 기류가 차기 대선의 세바스티안 삐네라에게 더욱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함. **EMERiCs**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년 12월 5일자 자료분), Servicio Electoral(칠레 선거관리 위원회), 주 칠레대사관 및 El Mercurio등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